

# 경판(京板) 방각소설 <24장본>의 문헌적 성격

李 裨 憲\*

## 차 례

- |  |                             |
|--|-----------------------------|
| 1. 서 론                                 | 4. 판본 비교에서 본 <24장본>의 문헌적 성격 |
| 2. 방각소설 출판의 일반적인 과정                    | 5. 결론, 그리고 남는 말             |
| 3. 정제성(整齊性)이 파괴된 <24장본> : 판식의 차이와 그 의미 |                             |

## 1. 서 론

문자로 기록된 대상을 검토함에 있어서 한 축을 형성하는 것이 해석학적 접근 방법이라면 다른 한 축을 형성하는 것은 문헌학적 접근 방법이라 하겠다. 이 점에 있어서 모든 연구는 이들 두 축 사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할 것이며, 하나의 축만을 연구의 중심으로 삼는다 하여도 다른 하나의 축 역시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이다. 한국고전산문의 한 부분을 이루는 고전소설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이는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소설의 판본을 검토하는 작업은 문헌학적 접근 방법에 치

\* 인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우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해석학적 접근 방법의 병행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작품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을 위해서는 기본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곧 개별 작품을 연구하는 경우에도 항상 기본 텍스트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본으로서의 판본이 지니는 문헌적 성격을 검토하는 일은 온당한 작업이라기보다는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판본에 대한 검토를 주로 개별 작품의 이본에 대한 정리 내지는 연구라는 한정된 틀 안에서만 수행하다 보니,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동류계 이본으로서 판본들의 성격을 규정하는 경향이 많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연장선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각각의 판본이 지닐 수 있는 의미나 성격을 규명함에는 더욱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하겠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그릇하여,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본 텍스트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소홀함과 오류의 직접적인 원인은 서로 다른 장소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비교 검토할 충분한 기회나 시간이 연구자에게 제대로 주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데에 있다 하겠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들은 이미 개별 작품별로 이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판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차하게 다시 다루는 이유는 판본의 변모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위치를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토는 여기에서 <24장본>이라고 지칭하는 판본의 기본적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24장본>으로 방각된 판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류를 수정해야만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작업이며, 결국은 각각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교합본의 형태로 이를 재구성해내야만 한다는 주장까지를 포함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방각소설로 간행된 바 있는 판본 전체가 모두 현전할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은, 현전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려는 끝없는 노력이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이본을 검토하는 작업은 결코 '최종보고서'가 될 수 없으며 결국 '중간보고서'가 될 수밖에 없다는 한시적인 성

격을 지닌 작업임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판본을 찾아내려는 노력과 병행하여, 현전하는 판본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면서 문헌적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은 결코 완결될 수 없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작업임이 틀림없다. 더군다나 모든 자료가 현전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다면, 현전하고 있는 판본이 판본 변모라는 전반적인 과정 가운데 정확히 어느 곳에 위치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새로운 판본을 찾아내는 작업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일단 현전하는 자료 가운데 일부를 검토하여, 판본으로서 <24장본>의 기본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검토 대상이 되는 판본은 홍길동전, 소대성전, 백학선전, 양풍전 <24장본>이며,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심청전 <24장본>도 함께 거론하고자 한다.<sup>1)</sup>

## 2. 방각소설 출판의 일반적인 과정

일반적으로 말해서 방각소설(坊刻小說)이란 방각본의 형식으로 출판된 소설을 지칭한다. 물론 방각소설의 의미가 이에 한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방각으로 간행된 소설을 방각소설이라고 지칭함에는 이 용어가 함의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서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방각소설이라는 용어가 지닌 개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에 대한 논의는 방각본의 형식으로 출판된 소설이라는 언급만으로 그치기로 한다.

일단 방각본으로 출판되었다는 것은 시장에서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서책이 ‘使用價値라는 척도에서 出版된 것이 아니고 交換價値 즉 商品化하여 市場的 去來<sup>2)</sup>’를 하기 위해서 출판되었다는 것이다. 이들 방각본이 모두 목판(木板)으로만 간행된 것은 아니다. 경우에

1) 현전하는 경판 방각소설 가운데 <24장본>으로 간행된 바 있는 양산백전과 용문전은 검토에서 제외한다.

2) 柳鐸一, 『完板坊刻小說의 文獻學的 研究』(學文社, 1981), 22면.

따라서는 토판(土版)이나 와판(瓦版)으로 간행되기도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목활자나 금속활자를 이용한 활자본으로 간행될 수도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목판으로 간행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양상이기에 목판으로 간행되었다는 전제 위에서 방각소설 출판의 과정을 일반화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1) 원고본 확정 : 출판 대상이 되는 미간(未刊)의 원고본(原稿本)이 있어야 한다. 이때 원고본은 작가가 직접 쓴 수고본(手稿本)일 수도 있고, 여러 차례 거듭된 필사를 통해서 전해지던 전사본(轉寫本)일 수도 있다. 수고본이나 전사본 모두 사본(寫本)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다.
- (2) 판하본 제작 : 원고본을 저본으로 삼아서 정서(淨書)하고 정서(精書)한 정사본(精寫本)인 등재본(登梓本) 곧 판하본(板下本)을 제작한다. 출판을 위해서 필사하는 것이기에 판하본은 정제성(整齊性)을 갖춘 형식으로 제작되며, 판하본은 판각 작업이 진행되면서 판목에 그 흔적만을 남긴 채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전사본이라고 할 수 있다.
- (3) 판목 제작 : 판하본을 가지고서 판목(板木)을 제작한다. 판하본을 뒤집어서 미리 준비된 목판에 붙인 후 건조시킨다. 이후 매일매일 판각할 부분에 기름 성분을 발라가면서 투명성을 확보한 상태로 판각한다. 이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이를 각수(刻手)라 지칭하며, 이렇게 완성된 판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츰 훼손되거나 멸실된다.
- (4) 판본 제작 : 완성된 판목을 가지고서 종이--주로 한지인 닥종이(楮紙)를 사용한다--에 인출하고 제책하여 서책을 완성시킨다. 인출을 담당하던 이를 인출장(印出匠), 제책을 담당하던 이를 제책장(製冊匠)이라 지칭한다. 이렇게 인출하여 제책된 것을 판본(板本) 또는 목판본(木板本)이라 지칭한다.

여기에서 언급한 (1), (2), (3), (4)의 과정을 모두 거친 작품은 초간본(初刊本)이라는 성격을 갖는다.<sup>3)</sup> 초간본 방각소설은 사본인 원고본으로부터 시작

3) 이를 초각본(初刻本), 개간본(開刊本), 개각본(開刻本) 등으로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신간본(新刊本) 또는 신각본(新刻本) 등으로 지칭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新'이 '처음으로'라는 의미보다는 '새롭게'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판본에 따라서는 간기(刊記)에 '新刊'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처음으로 간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것이 '처음으로'보다는 '새롭게'라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기에 기술적(記述的)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개인적 판단 때문에 이를 피한다. 또한 간기에 '開刊'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기에 이를 대표하는 용어로 '개간본(開刊本)'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다음에 언급될 '개간본(改刊本)'이라는 용어와 독음이 같기에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초간본(初刊本)'이

하여 판하본을 제작하고 판목을 처음 판각하여 만든 서책이라는 점에서 ‘정제성’ 곧 ‘整齊의美’<sup>4)</sup>를 가장 잘 갖추고 있는 판본이라 하겠다.

그러나 모든 방각소설이 위의 과정대로만 제작되는 것은 아니다. (1)과 (2)의 과정을 생략한 채, (3)부터 시작하는 방각본도 있기 때문이다. 방각본으로 처음 출판되는 작품의 경우에는 위의 과정을 충실히 따르겠지만, 이미 방각본으로 출판된 바 있는 작품인 경우에는 위의 과정 중 특정한 부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번각본(飜刻本) 또는 복각본(覆刻本)의 경우에는 기존의 판본이나 활자본을 해책(解冊)하여 판하본으로 삼기 때문에 (1)과 (2)의 과정을 생략하고 (3)의 과정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하본에서 사용한 판식을 그대로 따르면서 판목을 새기기 때문에 판본으로서의 정제성을 비교적 충실하게 유지하게 된다. 아주 정치하게 판각하면 이것이 번각본인지 아닌지 여간해서는 분간해내기조차 힘들다.

또한 (1)의 과정에서만 변화가 나타나고, (2), (3), (4)의 과정을 계속 진행할 수도 있다. 이미 판본이나 활자본으로 출판된 바 있는 작품의 경우, (1)의 과정에서 확정한 원고본에 해당하는 것은 사본이 아닌 판본이나 인본(印本)이다.<sup>5)</sup> 이때에 (2)를 생략하고 (3)의 과정으로 진행하면 앞서 언급한 번각본이 되겠지만, 이를 원고본으로 삼아 (2)의 과정 곧 판하본을 제작하는 과정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여 출판된 경우에는 이를 개간본(改刊本)이라 지칭한다.<sup>6)</sup> 이때에도 판하본의 정제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위에서 설명한 초간본이나 개간본 그리고 번각본은 모두 나름대로 판본으로서의 정제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판본으로서의 정제성(整齊性)을 포기하면서 나타나는 판본이 있다. 이는 판목을 제작함에 있어서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4) 柳鐸一, 『韓國文獻學研究』(亞細亞文化社, 1990 재판), 128면.

5) 이는 ‘印本 --> 寫本 --> 印本’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柳鐸一, 『韓國文獻學研究』(亞細亞文化社, 1990 재판), 17면 참조.

6) 이를 개각본(改刻本), 중각본(重刻本), 중간본(重刊本) 등으로도 부를 수 있다.

방식을 한꺼번에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작품이 시작하는 앞 부분(이를 전반부라 칭하기로 한다)은 번각본 제작의 방식을 사용하여 판목을 제작하고, 남은 부분(이를 후반부라 지칭한다)은 인본을 원고본으로 삼아 등재본인 판하본을 새롭게 정사하여 판목을 완성하는, 곧 개간본(改刊本)을 제작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판목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때에도 나름대로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나타날 수 있으나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타나는 각자체의 차이나 반엽에 수용하는 행수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판식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7)</sup>

또한 기존의 판목을 가져다가 이를 활용하면서 판본을 만드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 역시 새로운 판본으로 서적을 출판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판목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라는 활용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판목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면서 판목의 특정한 부분만을 수정하여 새로운 판본을 출판하는 방식이다. 이때 부분적으로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2), (3), (4) 또는 (3), (4)의 과정이 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판목을 의도적으로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곧 판목의 직접적인 훼손으로 말미암아 훼손되기 이전의 판목으로 출판하였던 기존의 판본은 더 이상 출판될 수 없게 된다.

기존의 판목을 활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특정한 부분(전반부)까지는 기존의 판목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활용하고, 그 다음 부분(후반부)부터는 (2), (3)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판목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제작된 판목(후반부)과 기존의 판목(전반부)을 가지고서 (4)의 과정을 거쳐 판본을 출판하는 방식이다.<sup>8)</sup>

7) "이같이 그들(木板本 : 인용자 보충)의 내용은 完結性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동시에 整齊性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가다듬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완결된 내용을 아무렇게나 써서 출판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의 크기, 板形의 조절, 편집상의 배려 등 그 나름의 美的 調和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론 寫本도 그런 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寫本에 비해 木板本은 外樣의 整齊性이 짙다는 것이다." 柳鏞一, 『韓國文獻學研究』(亞細亞文化社, 1990 재판), 18면.

8) 이때에는 사용하지 않게 된 후반부의 판목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판본을 다시 인쇄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

### 3. 정제성(整齊性)이 파괴된 <24장본> : 판식의 차이와 그 의미

먼저 24장으로 간행된 홍길동전, 소대성전, 백학선전, 양풍전의 외형적 형태를 판의 구성방식 곧 판식(板式)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24장본>을 살펴보면, 제1장 이하 제20장까지(이하 이를 <전반부>라 칭한다)의 판식과 제21장 이하 제24장까지(이하 이를 <후반부>라 칭한다)의 판식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각자체(刻字體)의 변화를 들 수 있으며, 반엽(半葉)에 새겨진 행수(行數)와 어미(魚尾)의 형태, 그리고 판심제(板心題)의 위치 등 판식 전체에 걸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점에서 본다면 이들 <24장본>은 모두 판본으로서의 정제성(整齊性)이 파괴된 판본이라 하겠다.

각자체(刻字體)의 변화는 첨부한 자료([그림 1] 이하 [그림 8])를 확인함으로써 쉽게 알 수 있기에, 여기에서는 판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 사이의 차이점 곧 정제성의 파괴 양상을 간략히 정리하기로 한다.

홍길동전 <24장본> [그림 1,2]		
장차(張次)	1-20	21-24
반엽행수	14행	<u>15행*</u>
어미형태	상화문	<u>삼혹*</u>
판심제	홍	홍
밑 위치	어미밑	어미밑

소대성전 <24장본> [그림 3,4]		
장차	1-20	21-24
반엽행수	14행	<u>15행*</u>
어미형태	상화문	<u>삼혹*</u>
판심제	쇼	쇼
밑 위치	상백구	<u>어미밑*</u>

양풍전 <24장본> [그림 5,6]		
장차	1-20	21-24
반엽행수	14행	<u>15행*</u>
어미형태	상화문	<u>삼혹*</u>
판심제	냥	냥
밑 위치	상백구	<u>어미밑*</u>

백학선전 <24장본> [그림 7,8]		
장차	1-20	21-24
반엽행수	15행	15행
어미형태	상화문	<u>삼혹*</u>
판심제	빅	빅
밑 위치	어미밑	어미밑

럽다. 더군다나 후반부에 해당하는 판목을 새로 제작한다는 것은 이미 기존의 해당 부분의 판목이 효용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미 사용가치가 없어진 기존의 판목(후반부의 판목)이 잘 보관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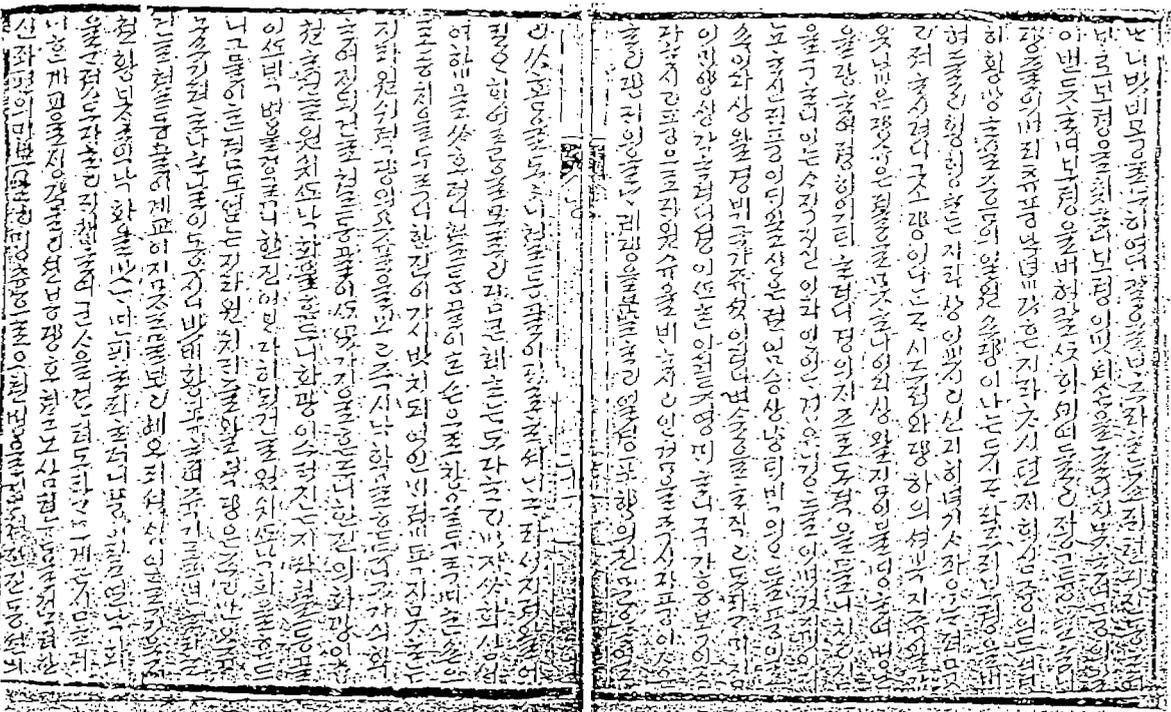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그림 4] <소대성전 24장본> 제21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그림 6] <양풍전 24장본> 제21장







이러한 외형적 형태에 있어서의 차이를 통하여 <24장본>이 지닌 판본으로서의 성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바로 <24장본>이, 후반부가 개각(改刻)<sup>9)</sup>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1회에 걸쳐 판목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2회에 걸쳐 판목이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에 <24장본>의 선행 판본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24장본>의 선행 판본은 전반부 즉 제1장 이하 제20장까지의 판식으로 계속하여 일관되게 판각되었던 판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전반부(제1장-제20장)는 선행 판본의 판목을 그대로 차용하고(또는 번각하고) 후반부(제21장-제24장)는 선행 판본의 내용을 축약하면서 판하본을 새로 제작하여 개각한 것이 현재의 <24장본>이라 하겠다. 그 흔적을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판식 자체의 변화와 각자체의 변화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10)</sup>

이러한 외형적 차이만이 <24장본>의 후반부가 후대에 개각된 것이라는 유일한 근거는 아니다. <24장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행문(行文)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반면, 그 이하의 부분 곧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4장본>의 후반부와는 다른, 오히려 서술이 더 장황한 행문을 가지고 있는 판본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 4. 판본 비교에서 본 <24장본>의 문헌적 성격

### 4.1. 홍길동전 <24장본>과 <30장본>

홍길동전의 경우, <24장본> 이외에 <30장본>, 2종의 <23장본>, <21장본>,

- 
- 9) '개각(改刻)'과 '개각(開刻)'은 서로 다른 어휘이지만 독음이 동일하다. 따라서 매번 한자를 병기하여 표기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앞으로 개각(改刻)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각'으로 쓰고 개각(開刻)인 경우만 '개각(開刻)'이라고 한자를 병기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 10) 전반부에 사용한 판목이 기존의 판목을 차용한 판목인지 혹은 번각한 판목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는 이에 선행하는 판본을 확인해야만 명확히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24장 가운데 20장에 해당하는 분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번각보다는 판목의 차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9장본>을 확인할 수 있는데, <24장본>의 성격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것이 <30장본>이다.<sup>11)</sup> <24장본>과 <30장본>을 행문과 판식 등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30장본>의 제1장 및 제2장은 <24장본>의 제1장 및 제2장과 번각 관계에 있다. <30장본> 및 <24장본>의 제3장 이하의 판식을 고려할 때, <30장본>의 제1장 및 제2장이 <24장본>(엄밀한 의미에서는 <24장본>의 선행본인 <34장본\*>)의 해당 부분을 번각한 것으로 일단 추정할 수 있다.

둘째, <30장본>의 제3장 이하의 행문과 이에 대응하는 <24장본>의 전반부의 행문을 살펴보면 1) 표기법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 2) 부분적으로 <30장본>에 부여된 어구가 있으나 <24장본>의 해당 행문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그림 9] 참조).

셋째, <24장본>의 후반부를 이에 대응하는 <30장본>의 행문과 비교하면, <24장본>의 행문이 <30장본>에 비하여 매우 심하게 축약된 행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30장본>의 행문이 <24장본>의 행문을 부여한 것이라는 설명도 가능하겠으나 이러한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여타의 다른 판본들이 모두 <30장본>과 유사한 결말이나 행문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0장본>의 경우, 판식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은 제2장과 제3장 사이이다. 그리고 <24장본>의 경우, 판식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은 제20장과 제21장 사이이다. <24장본>의 이 부분은 앞서 우리가 전반부와 후반부라고 구분하였던 부분이다. <30장본>의 판식 변화를 염두에 둔다면, <30장본>은 <24장본>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24장본>은 후반부에서 판식이 바뀌고 있으며, 후반부의 행문에 있어서도 축약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24장본>에 선행하는 판본의 설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 선행하는 판본은 <24장본>의 전반부와 동일한 판식을 유지하고, 또한 후반부에 있어서도 <24장본>처럼 행문을 엄청나게 축약한 것이 아니라, <30장본>의 해당 행문과 유사한 행문을 지닌 판본으로 설정할 수 있다.

11) 여기에서 말하는 <24장본>은 기존의 논의에서 <한남본> 또는 <한남서림본> 등으로 지칭하던 판본이며, <30장본>은 <야동본> 또는 <야동간본> 등으로 지칭하던 판본이다.



이러한 선행 판본의 설정(그 장수를 계산하면 대략 34장으로 추정된다) 가능성은 결국 <24장본>과 <30장본>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선행 판본(이를 <34장본\*>이라 지칭한다)과의 관계 속에서 <30장본>과 <24장본>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4장본\*>은 <24장본>의 전반부에서 사용된 판식으로 전체가 판각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과 행문은 <30장본>과 유사한 판본이며, 제1장 이하 제20장까지는 <24장본>의 전반부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30장본>은 <34장본\*>의 제1장 및 제2장을 가져다가 판하본으로 삼아서 번각하고, 제3장 이하 제34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판하본을 새로 제작하여 개각한 판본이다. <24장본>은 <34장본\*>의 제1장 이하 제20장까지의 판목을 차용하고, 남은 14장(제21장 이하 제34장)의 내용 중 일부만을 극도로 축약, 내용의 일부를 누락시키면서 모두 4장으로 개각한 것이다.

이는 결국 <24장본> 홍길동전에 선행하는 판본으로 <34장본\*>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며, 이러한 전제 위에서 <24장본>의 후반부를 살펴보면 행문의 연결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못한 부분은 개각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언지간의 산상의 다노르니 인형이 조셔히 / (14)본즉 산세 응당호지라  
 길동의 지식을 못너 툇복호더라 / (15)산녘을 맞치미 호가지로 길동의 처쇼  
 로 도라오니 빅지와 도// (1)시 쏘고와 숙니을 마조 비은 후 인형 춘냥이  
 못너 길동의 지// (2)식을 득[Sic]복호더라 산녘을 맞치미 한가지로 길동의  
 처쇼로 // (3)도라오니 춘냥이 길동의 당신희를 칭찬호더라 여러놀이 되// (4)  
 미 (<24장본> 23장 전엽 및 후엽)

결국 위에서 언급한 제 현상은 홍길동전 판본 사이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34장본\*>과 <30장본>( <34장본\*>을 부분 번각, 부분 개각한 판본) 사이의 경쟁, <23장본>( <30장본>의 행문을 토대로 축약하여 전체를 개각한 판본)과 <24장본>( <34장본\*>의 전반부는 판목을 차용하고 <34장본\*> 후반부를 축약 누락시켜 개각한 판본) 사이의 경쟁 등등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34장본\*>의 <24장본>으로의 전환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방각소설로 간행된 홍길동전 판본들이 상품으로서 ‘市場的 去來’를 목적으로 제작되어 상호 경쟁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의는 현전하는 판본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오래된 판본에 해당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가장 오래된 것은 <24장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24장본>의 후반부가 후대에 개각된 부분으로서 앞서 간행된 홍길동전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24장본>의 전반부를 선본(先本)이라 할 수는 있으나 <24장본> 전체를 선본(先本) 또는 선본(善本)이라 할 수는 없다. 반면에 <30장본>은 <24장본>의 전반부보다는 후대에 개각된 것이지만 처음 간행된 홍길동전의 행문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24장본> 전반부보다 선본(先本)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선본(善本)이라 할 수는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34장본\*>이 현전하지 않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아쉽지만 홍길동전을 교합본의 형태로 재구해 냄으로써 홍길동전의 기본 텍스트를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2)</sup>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4장본>의 전반부와 <30장본>을 토대로 하여 각각의 판본에 나타나는 오각된 부분을 교정한 교합본의 재구가 절실하다 하겠다.

#### 4.2. 소대성전 <24장본>과 <36장본>

소대성전에서도 홍길동전과 유사한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소대성전의 경우, <24장본> 이외에 <36장본>, <23장본>, <21장본>, <20장본>, <16장본>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sup>13)</sup> <24장본>의 성격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것이 <36장본>이다. <24장본>의 행문과 <36장본>의 행문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12) 또 하나의 방법으로 <34장본\*>의 원고본 역할을 한 전사본을 찾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홍길동전 이본을 검토하면서 필사본을 통하여 원본 계열을 확정하려는 연구가 나타남은 필연적인 결과라 하겠다. 이윤석, 『홍길동전 연구 -서지와 해석-』 (계명대학교출판부, 1997).

13) 이들 이외에 일본 천리대 도서관에 소장된 두 종의 소대성전(<16장본>과 <21장본(낙장본)>)이 더 있다고 하나 미처 검토하지 못하였다. 서경희, 「<蘇大成傳>의 서지학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참조.

첫째, <24장본>의 제1장 및 제2장은 <36장본>의 제1장 및 제2장과 번각 관계에 있다. <24장본>의 제3장 이하의 판식을 고려할 때, <24장본>의 해당 부분이 <36장본>의 해당 부분을 번각한 것이라 하겠다.

둘째, <24장본>의 제3장 이하 전반부의 행문을 이에 대응하는 <36장본>의 행문과 비교하면 --표기법과 같은 외양적 차이는 제외-- <24장본>에서 일부 부연되거나 변화된 어구가 있으나, <36장본>의 해당 행문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그림 10] 참조)

셋째, <24장본>의 후반부의 행문을 이에 대응하는 <36장본>의 행문과 비교하면 <24장본>의 행문이 앞서의 제20장까지의 행문과는 달리 심하게 축약되어 있다.

<36장본>의 판식이 일관된 모습을 보임에 비하여, <24장본>은 판식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24장본>의 선행 판본 설정을 가능하게 해 준다. <24장본>의 선행 판본으로 <29장본\*>을 설정할 수 있다. <29장본\*>은 <36장본>의 제1장 및 제2장을 번각하고, 남은 부분(제3장 이하 제29장까지)은 <36장본>의 행문을 모두 답습하면서 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29장본\*>의 제1장 이하 제20장까지의 판목을 차용한 것이 <24장본>의 전반부에 해당하며, <29장본\*>의 제21장 이하 제29장까지를 다시 극도로 축약하여 개작한 것이 <24장본>의 후반부에 해당한다. <24장본>의 후반부가 극도로 축약되어 있다는 사실은 <23장본>의 행문과 견주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sup>15)</sup> 그리고 <23장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판본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9장본\*>의 판본이 <24장본>의 판본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14) <24장본>의 제20장 후엽 14행까지의 행문과 <36장본>의 제23장 전엽 9행 중간까지의 행문이 상호 대응한다.

15) <23장본>은 <36장본>을 토대로 개작한 것이 아니라 추정한 <29장본\*>을 토대로 하여 전체를 새롭게 개작한 것으로 보인다. <36장본>과 <24장본>의 전반부의 행문을 비교하여 양본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을 확인하면, <23장본>의 행문이 <24장본>의 행문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물론 <23장본>의 해당 행문 가운데 <24장본>의 후반부에 대응하는 행문은 모두 <36장본>의 행문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4장본>의 후반부 행문은 <23장본>이 나타날 때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행문이기 때문이다.



결국 소대성전 <24장본>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변화는 <24장본>에 선행하는 판본으로 <29장본\*>이 있었으며, <29장본\*>을 개각한 것이 <24장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하겠다.

여기에서 소대성전이 중요한 것은 홍길동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홍길동전 <34장본\*>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소대성전 <36장본>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소대성전 <29장본\*>이 현전하지 않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소대성전 <36장본>에서 비롯하여 소대성전 <24장본>으로 이어지는 판본의 변모 과정을 통하여 홍길동전 <34장본\*>에서 홍길동전 <24장본>으로의 변모 과정을 나름대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소대성전의 경우 <36장본>이 선본(先本)이면서 나름대로 선본(善本)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합본을 재구성할 필요성까지는 없다 하겠다.

#### 4.3. 양풍전 및 백학선전 <24장본>

양풍전의 경우, 공교롭게도 남아 있는 판본이 <24장본>과 <20장본>뿐이어서 선행 판본을 재구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24장본>과 <20장본>의 행문을 비교하면, <24장본>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각각 대응하는 <20장본>의 해당 행문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따라서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4장본>의 전반부에 속하는 행문과 이에 대응하는 <20장본>의 해당 행문을 비교하여 보면, <24장본>의 행문이 <20장본>의 행문보다 더 상세한 서술을 보인다. 그러나 <24장본>의 후반부에 속하는 행문과 이에 대응하는 <20장본>의 행문을 비교하여 보면, <24장본>의 행문이 더 상세한 서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20장본>의 행문이 <24장본>의 행문보다 더 상세한 서술을 보인다는 것이다. 전반부에서 <24장본>과 <20장본>의 행문이 보여주는 관계와 후반부에서 <24장본>과 <20장본>의 행문이 보여주는 관계가 서로 상반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판본을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sup>16)</sup>

16) 양풍전을 연구하는 경우, 기본 텍스트로 단순히 <24장본>을 선택한다거나 아니

이는 곧 <24장본>에 선행하는 판본이 있었다는 것이며, 이 선행 판본의 제 21장 이하를 개각한 것이 현재의 <24장본> 후반부라는 주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20장본>은 <24장본>을 토대로 하여 형성된 판본이 아니라 <24장본>의 선행 판본을 토대로 축약하여 개각한 판본이라는 것이다. 그 선행 판본은 <29장본\*>으로 추정된다.

백학선전 역시 현전하는 판본으로 <24장본>과 <20장본>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20장본>이 <24장본>을 저본으로 삼아 개각한 판본이기에 <24장본>의 선행 판본의 전체적인 양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4장본>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있어 반엽에 수용하는 글자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24장본>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판식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24장본>에 선행하는 판본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하겠다. 이러한 가능성은 필사본과의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나 현재의 입장에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백학선전 <24장본> 역시 연구의 기본 텍스트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본 텍스트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 4.4. 심청전 <24장본>과 <26장본>

위에서 검토한 홍길동전, 소대성전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한 현상을 심청전 <24장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청전 <24장본>은 두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를 함께 <24장본>이라 지칭하기로 한다.

심청전 <24장본>의 경우, 반엽 14행으로 새기던 제1장 이하 제23장까지와 달리, 제24장은 반엽 15행으로 새기고 있어 그 판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제1장 이하 제23장까지는 침자리가 있음([그림 11] 참조)에 비하여 제24장은 침자리가 없다([그림 12] 참조)는 점, 그리고 각자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

면 <20장본>을 선택한다거나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하겠다.





이처럼 <24장본>의 제24장이 기존 판본의 뒷부분을 축약한 것이라는 추정  
은 현전하는 <26장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6장본>은 반엽  
15행의 체재로 판각되어 있으며, <24장본>의 전반부(제1장-제23장)에 해당하  
는 행문은 <26장본>의 제17장 후엽 9행 중간 부분까지 수용되어 있다([그림  
13] 및 [그림14] 참조). 그리고 <24장본>의 제24장의 행문은 <26장본>의 제  
17장 후엽 9행에서 제20장 후엽 3행에 수록된 행문을 축약한 행문이다. <26  
장본>의 행문이 <24장본>의 제23장까지의 행문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은  
<26장본>이 <24장본>의 선행 판본의 행문을 수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  
을 가능하게 한다. <26장본>의 행문 전부를 <24장본>의 제23장까지의 판식  
으로 판각한다면 이는 <35장본\*>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반엽 14행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35장본\*>을 저본으로 하여, 반엽 15행을  
기준으로 판식을 바꾸어 판하본을 새로 작성하고 판목을 다시 새긴 것이 현전  
하는 <26장본>일 것이다. 그리고 <35장본\*>의 제24장<sup>17)</sup> 이하 제35장까지를  
극도로 축약하여 반엽 15행으로 개각한 판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  
역시 <26장본\*>의 형태일 것이다. 추정된 <26장본\*>의 판목은 <35장본\*>의  
제1장 이하 제23장까지의 판목을 직접 가져다가 사용하고 제24장 이하 제26장  
까지는 판하본을 새로 작성하여 판목을 완성한 것이라 하겠다. 이는 심청전  
<26장본\*>의 판목 제작 방식이 흥길동전 <24장본>의 판목 제작 방식과 동일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6장본\*>의 판목 중에서 제24장까지를 인행한 것이  
현전하는 <24장본>의 하나(24장본A)이며, 제24장의 후엽 15행의 일부를 산략  
하여 인행한 것이 현전하는 <24장본>의 또 다른 하나(24장본B)이다.

---

17) 판목을 새길 때에 앞면과 뒷면을 모두 사용하는 방식으로 판목을 구성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23장과 제24장이 앞과 뒤에 새겨진 12번째 판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판목을 이용하여 제23장을 인출하고 있다면, 제23장과 제24장  
까지를 인출하고 제25장 이하 제35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축약하여 개각하는 것  
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제24장 이하 제35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제24장이 새겨진 판면에 물리적 훼손과 같은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며, 혹 심청전 판목은 판목의 양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판목의 한쪽 면만을 사용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도 한다. 해당하는 판목이 발견된다면 쉽게 해결되었지만 판목을 볼 수 없는  
지금에 있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그림 13] <십청전 26장본> 제17장



따라서 <35장본\*>이 현전하지 아니하는 지금에 있어서 어느 판본이 선본(先本)이고 어느 판본이 선본(善本)인가 하는 기본 텍스트의 선정과 관련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논의는 현전하는 판본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오래된 판본에 해당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가장 오래된 것은 <24장본>의 전반부(제1장 이하 제23장)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후반부(제24장)가 후대에 개각된 부분의 일부분으로서 앞서 간행된 심청전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24장본>의 전반부를 선본(先本)이라 할 수는 있으나 <24장본> 전체를 선본(先本) 또는 선본(善本)이라 할 수는 없으며, 현전하지 아니하는 <26장본\*> 역시 선본(善本)이라고 할 수도 없다. 반면에 현전하는 <26장본>은 <24장본>의 전반부보다는 후대에 개각된 것이지만 처음 간행된 심청전의 행문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24장본> 전반부보다 선본(先本)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선본(善本)이라 할 수는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35장본\*>이 현전하지 않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아쉽지만 심청전을 교합본의 형태로 재구해냄으로써 심청전의 기본 텍스트를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24장본>의 전반부와 <26장본>을 토대로 하여 각각의 판본에 나타나는 오각된 부분을 교정한 교합본의 재구가 절실하다 하겠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심청전 <24장본> 역시 앞서 검토한 다른 작품 곧 홍길동전이나 소대성전 <24장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결론, 그리고 남은 말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홍길동전, 소대성전, 양풍전, 백학선전, 심청전 <24장본>이 지닌 판본으로서의 문헌적 성격은 뚜렷하게 드러났다 하겠다. 이들 작품의 판식이 변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면, 전반부는 이에 선행하고 있던 판본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으나 후반부는 필요에 의해서 축약하여 개작된 판목을 사용한 텍스트라는 것이다.

소대성전의 경우, <36장본>이 선본(先本)이면서 선본(善本)으로 현전하기에 연구의 기본 텍스트로 설정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남은 작품인 홍길동전, 양풍전, 백학선전, 심청전의 경우, 연구의 기본 텍스트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백학선전처럼 선행 판본의 재구 자체가 어려운 경우라면 일단 <24장본>을 기본 텍스트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그러나 여타의 다른 작품의 경우, <24장본>이 지닌 텍스트로서의 한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를 연구의 기본 텍스트로 선정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들 판본의 전반부가 비록 선본(先本)이면서 선본(善本)이기는 하지만, 후반부는 후대에 축약되면서 개작된 부분으로 선본(先本)이거나 선본(善本)일 수 없다는 점에서, <24장본> 전체를 선본(先本)이라거나 선본(善本)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를 기본 텍스트로 삼아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논의한다면, 이는 해당 텍스트만의 의미일 뿐 그 작품의 본래적 의미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 작품의 다른 판본이 선본(先本)이면서 선본(善本)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소대성전을 제외하면 이에 해당하는 판본을 찾아볼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합본의 확립이 필요하다. 물론 이 교합본의 유효성은 일단 선본(先本)이면서 선본(善本)인 판본이 나타나 때까지라는 한시적 성격을 지니기는 하지만, 새로운 판본이 나타나더라도 교합본의 유효성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선본(先本)이면서 선본(善本)인 부분을 많이 가진 <24장본>

의 전반부와, 선본(先本)은 아니지만 현전 판본 가운데 선본(善本)인 다른 판본의 후반부를 이용하면서 교합본의 텍스트를 재구하고 이를 주석하는 작업은 도외시킬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더군다나 복사기의 보급이 일반화되어 판본 사이의 비교가 이전보다는 훨씬 용이해졌고, 컴퓨터의 보급으로 탁상출판이 가능해진 오늘날에 있어서 이를 도외시한다면 이는 큰 잘못이라 하겠으며, 필자 역시 이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 하겠다.

## 참고문헌

- 柳鐸一, 『完板坊刻小説의 文獻學的 研究』(學文社, 1981)  
柳鐸一, 『韓國文獻學研究』(亞細亞文化社, 1990 재판)  
서경희, 「〈蘇大成傳〉의 서지학적 접근」(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이운석, 『홍길동전 연구 -서지와 해석-』(계명대학교출판부, 1997)  
李昶憲, 「한남서림 간행 경판방각소설 연구」(한국문화 21, 1998)

Abstract

## Xerographic Stories of the 24 Leaves Published in Seoul Area and Their Meaning

Lee Chang-Heoun

Xerographic stories published in Seoul area is also named as Seoul Block Prints. And they can be classified by its leaves, such as the 24 leaves, the 20 leaves and the 16 leaves.

Particularly Xerographic Stories of the 24 leaves, published under the title of Hong-Gildong-jeon(홍길동전), of So-Daeseong-jeon(소대성전), of Yang-Pung-jeon(양풍전), of Baekhakseon-jeon(백학선전), and of Sim-cheong-jeon(심청전), are composed of two parts. The first half of the 24 leaves differs from the second half of the 24 leaves in many respects : the columns in a leaf, the shape of encarved letters, the location of the board-title and the appearance of the fish-tail.

So each version of the 24 leaves is closely compared by sentence-analysis with other version of the 30 leaves, Hong-Gildong-jeon(홍길동전); of the 36 leaves, So-Daeseong-jeon(소대성전); of the 20 leaves, Yang-Pung-jeon(양풍전); of the 20 leaves, Baekhakseon-jeon(백학선전); of the 26 leaves, Sim-cheong-jeon(심청전).

As a result, the 24 leaves is not carved once and for all, and is carved twice after a certain period. The first carving is found in the first half of the 24 leaves, and the second carving is found in the second half of the 24 leaves. And the 24 leaves is originated in the early edition which is composed of more leaves. The first half blocks of the 24 leaves is originally from the early edition's blocks, the second half blocks of the 24

leaves is newly carved through the re-written papers from the early edition.

In conclusion, Xerographic Stories of the 24 leaves are not suitable for the standard text. Thus the corrected and reformed text ought to be mixed with the best edition and the oldest edition which remain up to the present. And it will be the standard text until the best and oldest edition will be found.